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지역문화 아이콘'으로 우뚝

2013년 개관 후 12만명 관람 및 각종 수상 잇따라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대한민국의 '지역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18일 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16 지역문화대표브랜드'에서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은 지역의 특화된 문화발전유도하고 지역문화 발전 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문화브랜드로서 가치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은 오래된 양곡창고를 미디어아트미술관, 문화카페, 책방방 북아트센터, 책박물관 등으로 재탄생시킨 복합문화공간이다. 일제강점기에 만경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일제가 수탈하기 위해 임시로 보관하던 양곡창고라는 선조들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지만, 지역과 함께한 오래된 건물의 가치를 살려 근대문화유산이자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특히 2013년 개관 이후 12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문화브랜드와 지역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지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콘텐츠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삼례문화예술촌의 가치는 각종 수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올해만해도 이번 지역문화대표브랜드 대상과 함께, 지난 6월 아시아 각국 및 지역간 관광문화교류 촉진 및 아시아 관광사업 발전 기여를 위해 제정된 아시아관광마케팅 사례상 은상을 받았다. 또한 2014년에는 농촌 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모색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민들의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농어촌 건축대전 본상'을 수상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침체된 지역을 살리는 창조적 문화예술 기반으로 부상시킨 점을 인정받아 안전행정부의 '향토자원 베스트 30선'에 선정되는 것은 물론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밖에 국토도시 공간 품격 향상에 기여한 창의적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3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통령상을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대한민국의 '지역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거머져기도 했다. 박성일 군수는 "앞으로 추진될 삼례문화예술촌 2차 사업을 비롯해 도시재생사업, 비비정예예술처, 복합문화공간 조



전북도립여중고, 학습발표회 '작은 출발, 큰 결실'

성인여성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전북도립여중고가 올 한해 학생들의 산물을 선보인다. 도립여중고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작은 출발, 큰 결실'이라는 주제로 2016학년도 학습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이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틈틈이 갈고 닦은 재능을 발산하는 자리로 다채로운 공연과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창시절을 신나는 노래와 춤으로 표현한 코미디댄스, 웃음으로 버무려진 도립학단의 풍트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발표회에선 전북미술대전 등 도내 유수의 미술대회에서 입상한 20여점의 수채화점을 비롯해 백일장작품, 공예작품, 캘리그래피 등 오감을 자극하는 작품도 만나 볼 수 있다. 전은순 교장은 "성인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 있고 뿌듯하다"며 "일찍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한 여성들에게 평생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개교 18년차(1998.3.9일 설립)를 맞이한 전라북도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전라북도가 직접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2017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017년 2월 10일까지며, 모집인원은 중·고교 각각 30명씩 총60명이다. 학교는 정규 교과과정과 더불어 사물놀이, 캘리그래피, 건강요가, 수채화, 워드프로세서, 한자 라인댄스, 한식조리 등 학생 개개인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동아리 및 자격증반을 지원 운영 하고 있다. 학교는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19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문의 063)230-6890. /정해은 기자



다음국악관현악단, 창단연주회 '강물처럼 들꽃처럼' 공연

다음국악관현악단(단장 최유정)은 전북 지역 순수 민간전문 국악관현악 단체로 각 계층에서 모인 3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여러 장르와의 협업 및 새로운 악기와의 융·복합 등으로 국악의 대중화·보편화를 위한 담금질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창단 이래 전주대사습놀이 기획초청 폐막공연 국악의 수도, 전주! 대동놀이! (풍남문화장), 전라북도 우리기타 우리마당 기획초청 폐막공연 '신명불전 (전북도청)', '덩더쿵 국악교과 페스타 국악교과 음원제작' 사업 참여(전주시), 전라북도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비탈의 의식' 음악 참여(한국전통문화진흥원), KIST 주관 과학과 문화 융·복합 세미나 초청공연(서울 DDP) 등의 음악적 활동을 그려왔다. 이 같은 일련의 활동은 창단연주회를 개

최하기 위한 관현악단의 정중동행 보였다. 다음국악관현악단이 오는 22일 오후 7시 30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강물처럼 들꽃처럼' 공연을 갖는다. 이날 음악회는 국악관현악을 위한 <하늘의 꽃> 서곡으로 열고 생활협주곡 <아리랑>-생활GLD LIANG 대금협주곡 <청>-대금서정미, 거문고협주곡 <대지의 노래-거문고> 임영란 국악관현악을 위한 <섬진강의 새벽>-타악 아리(박중대, 이순하, 최상진) 등을 들려준다. 이번 연주회 프로그램은 악단 예술감독 강성오씨가 10여 년간 작곡한 400여 작품 가운데 악단의 색채가 극명하게 드러날 만한 곡으로 선별했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다음국악관현악단이 지향하는 창작음악의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주민참여형 뮤지컬 26일 공연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이 주민참여형 뮤지컬 '청춘의 꿈' 무료공연을 26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오후 3시, 6시, 총2회 펼친다. 뮤지컬 '청춘의 꿈'은 극단 오락 정삼식 대표가 연출을 맡아 완주군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군민 참여형 공연으로 제작됐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과 연극을 결합한 가무악극으로 연극과 무용을 통해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가미했다.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후 독립운동을 하던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대중음악을 편곡했다. 앞서 뮤지컬 제작을 위해 지난 5월 주민



을 대상으로 배우를 모집하고 주 2회 연습 등 6개월간의 맹연습을 통해 순수 완주군민들의 끼와 열정을 담았다. (재)완주문화재단 권한장 심임이는 "이번 주민참여형 뮤지컬 '청춘의 꿈'은 주민들에게 참여와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원주=이중복기자

'헤비메탈 전설' 메탈리카 10집 발표 내년 내한공연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밴드로 통하는 헤비메탈의 전설 '메탈리카(Metallica)'가 19일 0시 새 정규 앨범 '하드와이어드...투 셀프 디스트럭트(Hardwired...To Self-Destruct)'를 공개한다. 2008년 정규 9집 '데스 마그네틱(Death Magnetic)' 이후 무려 8년 공백기를 깨는 정규 10집이다. 결성 이후 지난 30년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온 모습과 달리 밴드 초기의 정

체성이 강하게 묻어 있다. 메탈리카를 부흥의 정점으로 이끈 '쓰래시 메탈(Trash Metal)'의 연장선상에 놓인 앨범이다. 스테이시 메탈은 헤비메탈의 하위 장르다. 빠른 템포와 강력한 사운드가 특징이다. 또 이번 앨범에는 슬레이어, 블랙 사바스 등 강성 메탈 분야뿐만 아니라 아델, 닐 다이아몬드 등의 아티스트와도 작업한 바 있는 기타리스트 출신 그래픽 디자이너 프 로듀서로 참여했다. /뉴시스

팝 펑크 밴드 'DNCE', 첫 정규 앨범 발매

펑키함이 돋보이는 팝 펑크 밴드 '디엔씨(DNCE)'가 지난 18일 첫 번째 정규 앨범 '디엔씨(DNCE)'를 발매했다. 미국 형제 밴드 '조나스 브라더스'의 둘째 조 조나스(27)가 밴드로 한국인 여자 멤버 이진주(29)가 기타리스트로 활약해 눈길을 끈다. 순수 국내파인 이진주는 CCM 가수 소환(38)의 시누이로, 한국에서 소환과 함께 잠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가족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출발 19세 때 미국 LA로 건너가 음악학교를 다녔다. 이밖에 베이스 롤 휘틀, 드러머 잭 로우리스로 구성됐다. 밴드명은 애초 DNCE가 아닌 댄스(DANCE)로 정해졌으나, 술김에 잘못 쓴 드렁큰 텍스트(Drunken Text)로 우연히 만들어지게 됐다. '완벽하지 않아도 즐거워'는 의미를 담았다. 데뷔 싱글이자 히트곡인 '케이크 바이 디 오션(Cake By The Ocean)'은 빌보드 싱글 차트 9위, 빌리 플레이팅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국내 자동차 광고 음악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올해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최고 신인상(Best New Artist)', MTV 유럽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퍼시' 부문을 받았다. 이번 앨범에는 펑키함과 그루브함이 말바탕에 깔린 청량하고 시원한 사운드를 담았다. 조 조나스와 롤 휘틀은 이번 데뷔 앨범에 대해 "음악적으로 디스코 펑크(Disco-Funk)와 맞닿아 있고, 일렉트로닉 라이트 오케스트라, 슬라이 앤드 패밀리 스톤, 위저, 어스 윈드 앤 파이어, 프린스 비지스 등에 영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뉴시스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 <2016년 11월 21일>

<p>▷쥐띠 46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나 티인과의 불화를 주의하라. 60년생: 일의 능률이 오르는 운으로 미루어 왔던 일을 진행하라. 72년생: 익숙했던 일에도 실수가 따르니 돌리더라도 두들겨 보라. 84년생: 구설수가 따르는 운이니 언행에 주의를 요한다.</p>	<p>▷소띠 49년생: 지나친 고집으로 다른 사람과 충돌하는 일이 생긴다. 61년생: 여성은 남자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니 순간적인 일이다. 73년생: 모든 일을 조심하고 중요한 일은 신중하게 때를 기다려라. 85년생: 한쪽의 일만 듣고 편 가르키 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p>	<p>▷호랑이띠 50년생: 짐작은 금물, 때로는 상황에 자신의 운을 맡겨보라. 62년생: 금전운이 좋아지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 운이다. 74년생: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담담. 86년생: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 있으니 투기나 투지는 불리하다.</p>	<p>▷토끼띠 51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운. 63년생: 남성은 여성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75년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 운이니 어려움도 잘 넘어갈 것이다. 87년생: 동기끼리 함께 협력하는 일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p>
<p>▷용띠 52년생: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마라. 64년생: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좋다. 76년생: 자신보다 약자에게 선행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88년생: 뒷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운.</p>	<p>▷뱀띠 53년생: 다른 사람들의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65년생: 앞으로 나아가기도 뒤로 물러서기도 못하는 운. 77년생: 순간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생각하라. 89년생: 외면적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내면적으로는 불안한 운.</p>	<p>▷말띠 54년생: 이성을 주의하지 않으면 구설에 휘둘리게 된다. 66년생: 금전적으로 손재수가 있으니 먼저 내보내면 큰 손재수 없다. 78년생: 문서를 주고 받는 일에는 아주 좋은 운이다. 90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p>	<p>▷양띠 55년생: 상황에 대한 권태를 느낄 수 있는 운이다. 67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중간중간 악질이 생기는 운. 79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이니 혼자 고민하지 마라. 91년생: 여성은 남성으로 인해 힘든 일이 발생하는 운이니 주의하라.</p>
<p>▷원숭이띠 55년생: 금전적으로 막대한 성공이다.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69년생: 문서에 결성이 비추니 빨리 움직이면 좋은 결과. 81년생: 급하게 결실을 맺으려고 하지 마라. 차근차근 진행하라. 93년생: 익숙했던 일이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p>	<p>▷닭띠 57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니 행운은 삼가라. 69년생: 티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81년생: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93년생: 동기끼리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운이다.</p>	<p>▷개띠 48년생: 속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라. 58년생: 건강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 70년생: 부지런히 움직이면 결과를 얻으니 늦게 움직이면 안된다. 82년생: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p>	<p>▷돼지띠 47년생: 시소한 욕심으로 큰 것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 59년생: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때, 덕으로 돌아올 것이다. 71년생: 이성과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후년에는 다시 화합. 83년생: 초심을 잃지 마라. 막상 일만되면 마음이 변하게 된다.</p>